

#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입후보 신청서

## □ 인적사항



성명	성풍현
소속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직위	교수

## □ 학력사항 (최종학력사항만 기재)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	졸업년도
MIT	원자력공학	박사	1987년 6월

## □ 경력사항 (대표경력 5개 이내)

기간	근무처	부서/직위	담당업무
1991.9 - 2014.5 (현재)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원자력공학과 대학, 대학원생 논문 지도, 강의 및 연구과제 수행
2012.9 - 2013.4	카이스트	입학처장	카이스트 대학생 대학원생 신입 선발 총괄
2006.9 - 2009.8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국가 원자력 안전관련 주요업무 (원전 운영 및 건설 인허가 등) 심의
2003.9 - 2008.8	한국원자력학회	편집위원장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NET) 편집 총괄
1987.7 - 1991.3	미국 AT&T Bell 연구소	연구원	통신시스템 개발 및 관련 연구

## □ 활동 내역

### 1. 한국원자력학회 활동 내역

기간	역할	담당업무
2009.9 - 2010.8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	학술담당 부회장으로서 연구부회 발전을 담당
2003.9 - 2008.8	한국원자력학회 편집위원장 겸 NET SCI 등재추진위원장	NET 편집업무 총괄 및 NET의 SCI Database 진입을 위한 업무 총괄 --> SCI(E) 및 SCOPUS 진입성공

2004.9 - 2005.8	한국원자력학회 원자력 계측제어 및 자동원격 연구부회장	원자력 계측제어와 자동원격을 한 연구부회로 만들고 초대 연구부회장으로 연구부회 발전을 담당
2001.1 - 2001.8	한국원자력학회 편집이사	“한국원자력학회지”의 출간을 담당
1995.9 - 1997.8 1999.9 - 2003.8	한국원자력학회지 편집위원	“한국원자력학회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1995.9 - 1997.8 1999.9 - 현재	한국원자력학회 평의원	한국원자력학회 평의원으로 활동중

(예 : 임원, 평의원, 연구부회장, 편집위원, 좌장 등의 활동)

## 2. 기타 활동 내역 (3개 이내)

기간	역할	담당업무
2006.9 - 2009.8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국가 원자력 안전관련 주요업무 (원전 운영 및 건설 인허가 등) 심의
2010.9 - 2011.8	미국원자력학회 한국지부 지부장 (Chair of Korea Section of ANS)	한국원산의 조찬모임 등 미국 원자력학회(ANS)의 한국 지부의 활동을 총괄
2006.6 - 2007.6	미국원자력학회 계측제어 및 인적요소 연구부회 부회장 (Chair of Human Factors and I&C Division of ANS)	전 세계 회원이 약 550명 정도 되는 미국 원자력 계측제어 및 인적요소 연구부회 (HFICD)의 연구부회장을 맡아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연구부회 발전을 총괄

(예 : 위원회, 이사회, 자문활동, 포럼 등의 활동)

## □ 출마소견 (학회 운영철학 및 기본 방안 등)

(4A용지 1매 이내)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성풍현입니다. 이번 2014년 8월 8일에 시행될 한국 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선출에 출마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 선출 방법에 의거해서 제 출마소견을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다섯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한국 원자력 학회의 설립목적이 “원자력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협조를 도모함으로서 원자력의 개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립목적이 지난 45년간 잘 지켜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이 잘 되어 있는 학회가 가장 훌륭한 학회라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 학회 조직이나 활동이 이 설립목적에 맞게 추진되어 왔는지 면밀히 다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다른 선진국의 원자력학회의 조직과 활동을 벤치마킹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회의 활동 및 정관 등을 좀 더 설립목적에 맞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학회가 세계의 리더 학회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2. 학술지 발간과 연구부회의 활동은 학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학회의 국제 학술지인 NET는 2007년에 SCI(E)에는 진입하였지만 아직 SCI Core에는 진입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구부회의 역사가 아직 20년이 되지 못하여서 회원관리, 임원선출 등 아직 미숙한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NET를 더욱 지원하고자 하고 연구부회의 활성화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각 연구부회 활동의 공개발표, 평가 및 건의를 하는 자리를 별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일이 연구부회의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도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도 매우 크고 지난 몇 해간 국내에 있었던 은폐사고, 위조사고, 잦은 고장 등으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원자력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매스컴을 통해 방송되어 국민들의 원자력에 관한 이해는 더욱 나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원자력학회에서 “원자력이슈위원회”라는 조직을 출범시켜 대응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능동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매스컴을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자력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4. 앞으로 지속적인 국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해외수출 등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원자력 인력양성과 해외수출 조직 및 리더십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회의 고급 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원자력 전문가 양성과 해외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일을 우리 원자력학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한 예로 전국 원자력공학과 학과장 모임을 신설한다든지 지금은 기존 학술대회 안에서 소규모로 시작하려 하는 단계에 있지만 젊은 원자력공학도의 양성을 위한 연차 학술대회 신설 등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원자력을 전공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원전의 해외수출을 돕기 위한 일들도 해외수출 조직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나 기존 학회의 해외지부의 강화나 추가 설립을 통해 능동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제가 만일 이번에 수석 부회장에 선출이 되어 활동하게 된다면 활동 기간 중인 2016년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2014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을 2016년으로 연기한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원자력학회에서 이 일이 잘 해결되도록 돕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학회에서 해 온 활동들을 잘 계승하면서 외국 원자력학회의 벤치마킹, 우리 학회 설립목적에 맞는지의 검토 등을 통해서 개선하겠으며 학회의 양 바퀴라고 할 수 있는 학술지 개선과 연구부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원자력 신뢰회복과 한미 원자력협정개정 도움, 원자력 인력양성과 원전 수출증대 도움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행히 여러 분야로 우리 원자력 학회의 일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편집위원장을 맡아 2007년에는 우리 학회지인 NET의 SCI(E)와 SCOPUS 진입에도 성공시켰고 학회 부회장을 맡아 연구부회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도 많이 냈었습니다. 또한 미국원자력학회 HFICD 연구부회장도 맡아 미국원자력학회 활동도 많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 원자력학회의 발전에 작게나마 힘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 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 5.

성명 :

성풍현

(서명)

